



4-5 대학
RE:NEW 총학생회장
인터뷰 & 활동보고



7 사회
다시 돌아온
불청객, 빈대



10 문화
지브리를
아세요?



12 기획
우리는
탄후루의 시대에
살고 있다!

중간고사 기간 ‘총장님의 에너지 부스터 행사’ 개최



지난 10월 24일 본교 학술정보관에서 중간고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총장님의 에너지 부스터 행사’가 진행됐다. 본교 김상식 총장을 포함한 교직원들이 함께 참여하여 200명의 학생들에게 에너지 음료와 사탕, 초콜릿이 담긴 총장님 표 ‘에너지

패키지’를 직접 전달하였다.

패키지는 학생들의 체력 회복과 마음의 안정을 위해 특별히 구성된 것이다. 김상식 총장은 ‘에너지 패키지’를 전달하면서 “시험 기간에는 체력 관리뿐만 아니라, 마음의 안정도 중요하다. 모두 힘내길 바란다.”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행사에 참

여한 이서연(국제20) 학우는 “중간고사 준비로 지친 가운데 에너지 패키지를 받아 큰 힘이 되었다. 본교의 따뜻한 배려와 학생들을 위한 노력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라며 행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본교는 학생들의 복지와 소통을 중시하며, 앞으로도 ‘총장님의 에너지 부스터 행

사’를 포함한 다양한 응원 프로그램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글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학교 홈페이지

본교, ‘경기 서남권 대학교 협의체(U7) 비교과 공유·협력 회의’ 진행



지난 10월 17일 본교 재림관 7층 회의실에서 ‘경기 서남권 대학교 협의체(U7) 비교과 공유·협력 회의’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는 경기 서남권 대학교 7개교 ▲강남대학교 ▲성결대학교 ▲안양대학교 ▲평택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협성대학교의 대학 간 협력을 목적으로 지난 5월 15일에 체결한 업무 협약서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비교과 관계자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교육 혁신을 위한 비교과 운영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본교 김상식 총장은 격려사를 통해 “급변하는 대학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들이 상생과 발전을 위해 공유 및 협력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비교과에 이어 교과까지 공유·협력으로 연

계되기를 희망한다.”라며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본교 배지현 교육혁신단장은 비교과 공유 협력 회의를 통한 지속적인 성과 획득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2023학년도 프로그램 교류 현황 점검과 교류 활성화 방안들을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모든 참여 대학들은 앞으로의 비교과 교류 활성화 및 확대의 의지를 다짐하며, 학생 참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강화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였다. 앞으로 경기 서남권 대학교 협의체(U7)는 교육 혁신을 중심으로 한 활발한 협력을 통해 대학교육의 질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

글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학교 홈페이지

사회과학대학, '소원 페스티벌' 진행



본교 중생관 앞 광장에서 지난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틀간 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소원[所願]'과 ▲사회복지학과 ▲행정학과 ▲국제개발협력학과가 연합하여 준비한 '소원 페스티벌'이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사회과학대학 소속 학우들뿐만 아니라 모든 학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는 다양한 부스가 등장했는데, '스넥존'에서는 추운 날 학우들을 따뜻하게 해줄 맛있는 빨간 어묵 간식을 제공하였으며 '게임랜드'에서는 학우들이 즐겁게 체험할 수 있도록 게임을 준비하였다. 특히 학우들의 눈을 즐겁게 할 동아리 공연도 함께 진행됐다. 1일 차에는 ▲주사랑음악선교단 ▲흑심이, 2일 차에는 ▲소리하나 ▲소너리스 ▲페

가수스의 무대가 이뤄졌다. 열정 넘치는 동아리 공연은 많은 학우들의 눈을 즐겁게 했다. 또한 행사에 참여한 학우들을 대상으로 푸집한 상품이 걸려있는 경품 추첨이 이뤄졌다.

행사에 참여한 김선화(사복20) 학우는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학우들을 위해 다양한 게임과 먹거리를 준비해 준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에 감사하다. 덕분에 재밌는 게임도 즐기고 맛있는 간식도 먹을 수 있었다."라며 이번 행사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이번 '소원 페스티벌'이 학업으로 지쳐있을 많은 학우들에게 즐거운 경험을 선사했길 바란다.

글/사진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유아교육과, 함초롬제 '마을들의 마을' 성황리에 마쳐



11월 1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틀간 본교 학술정보관 6층에서 유아교육과가 주최한 제43회 함초롬제 '마을들의 마을'이 진행됐다. 이번 함초롬제는 유아교육과의 졸업전시작품 관람이 가능했다. 더불어 야림국제회의실에서는 사전 신청을 통해 본교 소모임 '락유'가 준비한 동극 '파랑새'도 함께 관람할 수 있었다. 이외에도 유아교육과 학우들이 만든 작품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더 뜻깊은 행사였다.

동극 '파랑새'는 11월 1일 ▲11시 30분 ▲14시 30분 ▲16시에 총 3번 진행됐으며, 11월 2일은 ▲10시 ▲11시 30분 ▲13시 30분 ▲15시 30분에 총 4번 진행됐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이들 모두 유치원 유아들이 직접 본교로 방문해

동극 관람이 이뤄져 더욱 뜻깊은 행사로 마무리됐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정혜민(유교21) 학우는 "3년 동안 갈고닦은 노력의 과정과 열정을 여러분 앞에 겸손하게 선보일 수 있어 벅차고 행복했습니다. 이 순간에 느꼈던 감정들은 교사의 길을 걷는 우리가 성장하는 데에 있어 단단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곧 임용고시를 준비하게 될 본교 유아교육과 학우들의 미래에 날개를 달아준 뜻깊은 행사였길 바란다.

글/사진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본교, 서종로 장로 1억원 기부 감사패 증정 및 '서종로 강의실' 명명식 개최



지난 11월 15일 본교 재림관 709호 신학대학원 전용 강의실에서 '서종로 강의실' 명명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교직원 연합예배 직후, 서종로 장로의 발전기금 1억원 기부를 기념하여 감사패 증정식 후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서종로 장로와 전은경 권사 부부를 비롯하여 본교 김상식 총장과 교직원 ▲예수교대한성결교회 회계 황제돈 신림제일교회 장로 ▲윤형영 시흥시 희망나누리 이사장 ▲한은애 시흥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장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서종로 장로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책임과 사명을 느껴 그 사랑을 실천했을 뿐이다."라며 학교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그는 "본교와의 오랜 인연에 감사하며, 본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인재를 배출하기를 희망한다."라며 기부 뜻을 전했다.

김상식 총장은 "서종로 원로장로 및 전은경 권사 부부의 성결대학교를 향한 귀한 사

람에 감사하며, 본교가 미래사회를 선도하는 실무인재를 양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재 서종로 장로는 신림제일교회 원로 장로로서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부총회장 및 성결신학원 법인 이사를 역임했으며, 오랫동안 성결교단의 미래 목회자 양성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

으로 기부해오다가, 2021년에 1억 원 이상의 발전 기금을 기부하였다. 한편, 서종로 장로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한 아낌없는 후원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상 및 안양시장상 등을 수상한 이력이 있다.

글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학우들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자유롭게 뜻을 펼쳐 주세요!
성결대 학보사는 학우들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Instagram | sku_press
e-mail | skupress223@sungkyul.ac.kr
H.P | 031-467-8998
office | 학생회관 223호

‘2023 본교 공식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 진행



지난 11월 22일 수요일, 학술정보관 6층 야탑국제회의실에서 ‘2023 본교 공식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이 진행됐다. 시상식은 오전 11시에 시작해 약 20분간 진행됐으며, 수상팀 모두가 참석해 시상식을 맞았다.

이번 ‘2023 본교 공식 캐릭터 공모전’은 총 69개 팀이 참가했으며, 이들은 참신하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통해 마스코트를 제작했다.

수상팀은 전문가의 1차 심사를 거쳐 학생 및 교직원의 투표를 통해 선정되었다. 대상은 수상작이 없었으며, 최우수상 2팀과 우수상 1팀 외에 전체 참여 작품 중 완성도가 높은 3개의 작품을 노력상으로 추가 선정해 수상했다.

이번 시상식에는 김희선 홍보미디어센터장이 참석해 본교 총장을 대신하여 수상팀에게 상장과 상금을 전달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희선 홍보미디어센터장은 “여러분의 참신한 아이디어가 돋보이는 작품들이 많아

성결대학교 공식 캐릭터 공모전
결과 발표

*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상률 전성으로 축하드립니다.

순위/대상	공격/작품	수상자	학부
최우수상	물고기 캐릭터	김재민, 김도현, 김서영, 김은영	미디어소프트웨어학과
우수상	사자 (Lionel)	최수민, 김정은, 김주원, 이복진	미디어소프트웨어학과
우수상	성당	박우정	기독교교육상담학과
노력상	열린 보타	정태희	도시디자인정보학과
노력상	성공의관 송미희	심지민	연극영화학과
노력상	대중의 수호	최정민, 최민서	미디어소프트웨어학과

※ 시상식에 따라 본 공모전의 수상률 전성으로 축하드립니다.
※ 수상률 전성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베데스다와 함께하는 사람들
※ 수상률 전성으로 축하드립니다. (사)베데스다와 함께하는 사람들

수상작 선정이 쉽지않았다. 수상팀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반영하여 본교 공식 캐릭터가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학우들에게 감사함을 표한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본교 마스코트는 이렇게 선정된 당선작들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재작업 될 예정이다.

글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홍보미디어센터 제공

본교, ‘2023 대학생과 발달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공연’ 개최



본교 지역사회협력단이 주최하고 ▲(사)베데스다 ▲함께하는 사람들 ▲칸타빌 윈드 오케스트라가 주관하는 ‘2023 대학생과 발달장애인이 함께하는 문화공연’이 11월 9일 안양법계중앙원형 무대에서 개최되었다.

이 뜻깊은 행사에 본교 김상식 총장은 “경기도 대학생 공익활동 사업으로 대학생과 발달장애인이 문화적 교류를 통해 서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낸 것에 큰 감명을 받았다. 앞으로도 성결대학교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것이다.”라고 축하하면서 모든 공연 참여자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어 (사)베데스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신옥자 대표가 축사를 이어갔다. 이번 공연에는 ▲콘서트 콰이어 ▲페가수스 응원단 ▲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베데스다 문화예술단, 칸타빌 윈드 오케스트라가 참여해, 열정적인 무대로 관객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 발달장애인과 대학생이 예술을 매개로 서로의 삶을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소중한 시간을 선사했다.

이번 행사에 이어, 12월 21일 본교 기념관에서는 경기도와 안양시 주요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화합과 열정이 가득한 공연이 다시 한번 더 펼쳐질 예정이다.

글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신학대학원, ‘제3회 성결연합학술제’ 성황리에 마쳐



지난 11월 9일 본교 학술정보관 야탑 국제회의실에서 제3회 성결연합학술제가 개최됐다. ‘성결교회의 정체성 연구 및 실현 방안’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본교 신학대학원 제19대 싹트는 원우회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제49대 하모니 원우회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 제25대 에하드 원우회가 함께 주최하였다.

이번 학술제에서는 ▲본교 신학대학원-카이로노스(Kaironos) 성결-한국성결교회의 정체성 탐구와 성결신학 연구를 중심으로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존 웨슬리의 예배신학과 한국 성결교회의 예배의 과제: 1784년판 주일에 배서를 중심으로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한국교회의 도약을 위한 웨슬리안 성결론의 새로운 가능성에 관한 연구라는 제목으로 발제가 이뤄졌다.

본교 신학대학원 원우회장 박민혁 학우와 학술국장 정혜진 학우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행사에서는 본교 김상식 총장이 개회사를 했으며, ▲본교 신학대학원의 김영택 박사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의 오성욱 박사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의 김재효 박사가 심사위원을 맡았다. 학술제 결과는 ▲1등: 서울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2등: 본교 신학대학원 ▲3등: 나사렛대학교 신학대학원이 차지했다. 또 이날 학술제를 위해 ▲예수교대한성결교회 남전도회전국연합회 ▲하늘바람교회 ▲조이어스교회가 후원을 했다. 이번 행사가 성결교회의 정체성 연구에 많은 도움이 되었길 바란다.

글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학보사 일동

본교 지역사회협력단, 안양시 장애인 생태환경체험 진행



지난 10월 30일 서울대 관악 수목원에서 본교 지역사회협력단이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안양시 “베데스다와 함께하는 사람들”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이용 장애인 30명과 함께 생태환경체험을 진행하였다.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제약으로 자연 문화 활동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본교 주시후 교수와 ‘생태환경과 윤리’ 수업 수강생들이 함께 체험을 도왔다. 이 행사를 통해 참가자들은 계절의 전환과 가을의 아름다움을 체감하며, 신체적·정서적 안정을 얻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지역사회협력단 김계동 단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들을 위한 힐링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할 것이다. 본교가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라며 행사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가 본교 학우들에게 지역사회의 발전과 소외된 이들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

글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사진 - 본교 홈페이지

제39대 RE:NEW 총학생회장 인터뷰 & 활동보고

한 해가 끝나고, '총선거'의 시기가 왔다! 총선거란 2024년 새로이 설립될 성결대학교의 총학생자치기구(총학생회, 7단과대학 학생회, 학부(과) 학생회)를 학우들의 의견으로 직접 선출하기 위해 진행되는 선거다. 11월 20일(월) ~ 11월 22일(수)까지 진행된 총선거는 ▲인문대학 ▲글로벌경영기술대학 ▲예술대학 ▲사범대학 ▲IT공과대학, 총 5개의 단과대학과 ▲중어중문학과 ▲경영학과 ▲영화영상학과 외 총 17개의 학부(과)의 학생회가 출마했다. 이번 호에서는 다음 대(代) 학생자치기구의 본격적인 출발에 앞서, 제39대 RE:NEW 총학생회장 인터뷰와 활동을 보고하고자 한다.



제39대 총학생회장 박주혁

❶ 이번 임기 동안 이뤄진 공약 이행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20203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모든 공약을 지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조금 아쉽게 몇 개 공약이 완수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꽤 많은 공약이 이뤄졌고, 특히 저의 핵심 공약이었던 '학점 세이프 제도'가 확정이 됐다는 점이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❷ 지킨 공약 중 가장 자신 있게 이행했다고 보는 사업은 어떤 것인가요?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직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당장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될 '학점 세이프 제도'입니다. '혁신'이라는 부분은 저희 RE:NEW 총학생회가 가장 강조한 부분입니다. 그 혁신 공약 중 1번이었던 학점 세이프 제도가 실현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자신 있게 이행했다고 생각합니다.

❸ 가장 기억에 남았던 사업은 무엇인가요?(가장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

굉장히 많은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2023 영암축전 'POOL:US'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POOL:US' 같은 경우에는 기존 행사의 틀을 깨고, 3개의 장소에서 동시에 축제가 진행됐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그 이유는 학교는 학우들의 공간이며, 학우들이 주인이라는 부분을 드러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집행부들과 한 달 반 동안 밤을 새면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3,500명이 참여를 해주셨고, 역대급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❹ 지키지 못한 공약 중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무엇인가요?

사실 공약집에는 포함이 돼 있지 않지만, 시내버스 정류장을 성결대학교 앞으로 유치시키는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안양시청에 직접 가서 시장님, 교통과하고도 논의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버스 회사의 의견 종합도 받아야 하고, 손익 문제도 조금 따져야 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은 진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제 임기 중 아쉬웠던 부분은 시내버스 노선 확장이라고 생각합니다.

❺ 올해 RE:NEW 학생회에서 진행한 사업, 행사 가운데 학우들에게 아쉬웠던 점이 있을까요?

학우들에게 아쉬운 점보다는 오히려 더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어땠을까라는 서운함은 있습니다. 이번 임기를 끝마치더라도 앞으로 다음 대 학생자치기구, 그 다음 대 학생자치기구, 그리고 더욱 먼 미래까지 많은 학우들이 학생자치기구가 노력하는 부분을 알고, 행사와 사업 등에 많이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❶ 다음 총학생회가 이어받아 진행해 줬으면 하는 공약은 무엇인가요?

먼저 저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세부 성적 공개 제도입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노선 연장과 더불어 현재 상록지구 재개발로 인한 안전 소음 그리고 먼지 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부분을 다음 대 총학생회가 이어받았으면 좋겠습니다.

❷ 임기 기간 총평을 부탁드립니다.

꽤나 다사다난했고, 뿌듯한 한 해였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총학생회로 당선 후 가장 내세웠던 부분이 '혁신'이었습니다. 사실 학생자치기구라는 조직 자체가 혁신을 통해 발전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현재 학생자치기구가 입후보율, 투표율이 저조하고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입후보하여 그러한 부분을 많이 끌어올리고자 노력했습니다.

혁신적인 면들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도 꽤 많지만, 저희 총학생회는 많은 노력을 했고, 아쉬움은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했던 혁신적인 부분들을 좀 많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혁신적이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총학생회 회칙과 선거 시행의 회칙 등의 개정을 하면서 기존 학생자치기구의 틀을 어느 정도는 벗어나 더욱 발전시키고자 노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을 많이 봐주시고,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❸ 임기를 마치며 함께 지지하고 비판해 준 학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짧은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될지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학생자치기구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앞으로의 학생자치기구, 더욱더 미래의 학생자치기구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❹ 마지막으로 함께 노력해 준 리뉴 총학생회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나요?

RE:NEW 총학생회도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지만, RE:NEW 총학생회와 더불어서 모든 학생 자치기구 소속 학생회들에게 한 마디를 전하고 싶습니다. 저희 임기는 7개월이었고, 다른 학생회 분들의 임기는 1년이었습니다. 모두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너무나도 많은 고생과 노력을 했습니다. 총학생회장으로서 진심으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생회의 선배로서 앞으로 학생자치기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더욱 발전을 이뤄 학생 자치기구가 다시 한번 부흥기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글 - 이서연 기자 tjodus1596@sungkyul.ac.kr
사진 - 학보사 일동





#2023 연합 해오름식 - 4월 11일

2023 학생자치기구의 출범을 알리며 학우들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헌신을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학생자치 기구의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행사였다.



#2023 영암축전, POOL:US 5월 30일 ~ 5월 31일

제60회 영암축전 POOL:US는 수영장(POOL)과 우리(US)가 하나(+)되는 여름날의 축제였다. 본교 '우리' 모두가 하나로 '+'되는 축제를 만들겠다는 RE:NEW 총학생회의 다짐이 내포돼 있다.



#MBT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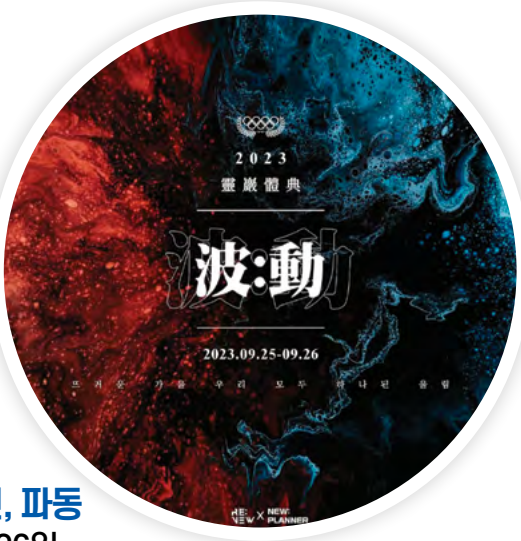
8월 21일 ~ 8월 23일

총 MT로, 각 신청자의 MBTI(성격유형검사)를 조사 후 유형별 관계도에 맞춰 적절한 팀 구성 후 MT를 진행한 프로그램이었다.



#총학생회 주관 하반기 단체봉사 9월 8일

본교와 MOU 체결을 맺은 수원 KT 위즈파크 경기장과 함께하는 재학생 단체 봉사 프로그램이었다. 봉사 일정은 수원 KT 위즈파크 야구장 내 플로깅 30분 진행 후 야구 경기 무료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2023 영암체전, 파동 9월 25일 ~ 9월 26일

'뜨거운 가을 우리 모두 하나 된 울림 : 波:動'이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된 2023 영암체전이었다. 8개의 색이 하나 돼 캠퍼스 전체를 물들이며 새로운 울림의 파동을 만들어 낼 것이라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우리가 만드는 행사 9월 25일

학생회=기획자, 학우=참여자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학우를 '위한' 행사를 학우와 '함께' 기획 및 운영하는 공모전 프로그램이었다. 최종 당선작은 '성결 가을밤의 시네마'로 상영작은 <너의 결혼식>이었다.



#2023 총학생회 회칙 개정안 9월 27일, 10월 4일

총학생회 회칙 재정립의 필요성으로 최종 공포됐다. 즉 기존 총학생회 회칙에서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사료되는 모호한 기준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학점 세이브 제도 2024년도 확정 사업

1학기 수강학점 중 잔여 학점이 발생하는 경우, 다음 학기로 최대 3학점 이내 이월 가능한 제도다. 2024년도부터 시행 예정이다.

이 외에도 지난 한 해 동안 RE:NEW 총학생회는 다양한 사업을 시도하고 펼쳐 학우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남겼다. 다양하고 많은 행사를 준비해 학우들의 대학 생활을 즐겁게 해준 RE:NEW 총학생회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글/인터뷰 - 이서연 기자 tjds1596@sungkyul.ac.kr,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사진/[참조] - RE:NEW 총학생회 공식 SNS

당신을 혹하게 하는 전세사기

최근 들어 집을 구하려는 청년들을 위협하는 전세사기가 늘어나고 있다. 집을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을 악용하는 전세사기는 한순간 사람을 혹하게 만들어 알면서도 당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렇듯 위험한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번 호에서 알아보고자 한다.

#전세사기, 확실히 알고 가자!

‘전세사기’라는 말을 들어보긴 했지만,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전세사기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기로, 전월세 계약을 할 때 내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거래를 한 후 돈을 빼돌리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전세사기에는 여러 유형이 존재한다. 먼저 집을 고를 때를 노린 강통전세 사기가 있다. 강통전세 사기는 강통주택을 이용한 사기인데 여기서 강통주택이란, 임대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보증금이 떼이게 되는 집을 통틀어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강통

주택은 보증금과 대출금의 총합이 집값의 80%를 넘는 집을 의미하므로 임대인이 얼마나 자기 돈을 들여서 집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다. 강통주택의 임대인은 불상사가 생겼을 때 빚 상환을 회피할 수 있으므로 정말 위험한 전세사기 유형 중 하나다.

또 임대인을 확인할 때를 노린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과 같은 사기 유형이 있다. 가짜 임대인과의 계약은 임대인이 아닌 사람이 임대인인 척 명의를 도용해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는 것을 말한다. ‘가짜 임대인’이 건물을 임대하며

알아낸 ‘실제 임대인’의 인적 사항을 이용해 자신이 건물주인 척 거짓된 전세 계약을 한 후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임대인의 위임장 또는 증명서류를 위조해 대리인 행세를 하며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로채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계약한 직후를 노린 이중계약이 있다. 이중계약은 하나의 주택을 가지고 두 사람 이상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듯 정말 다양한 수법의 전세사기들로 인해 많은 청년 세입자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전세사기의 피해사례들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늘어나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 1년간 자금을 거의 들이지 않는 방식으로 대구 남구와 달서구 일대의 빌라 5채를 매수해 선순 위보증금을 허위 고지한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사용한 전세사기 사례가 있었다. 임차인 56명에게 전세보증금 45억 원을 받은 후 계약이 끝나고도 돌려주지 않았던 것이다.

또 지난 2023년 9월 수원시의 정 씨 일가족들이 세입자들을 상대로 집단 전세사기를 일으킨 사건이 피해자의 신고로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들은 부동산 임대 법인 10



여 곳을 운영하며 경기 수원 일대 오피스텔과 빌라 등을 수십 채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임차인들과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이 가운데 부부의 아들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차려 해당 임대차계약을 중개한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과 피해액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사건들 외에도 많은 전세사기 피해사례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점점 더 교묘해지는 수법들이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

#전세사기...악몽 속의 피해자들

나날이 늘고 있는 전세사기들로 인해 많은 피해자는 악몽 속에서 살고 있다.

지난해 10월 12일, 서울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은 전세사기를 저지르고 경찰의 추적을 받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남성은 서울과 인천 지역에 약 1,500채의 주택을 가지고 전세사기 행위를 했고,

사망함에 따라 보증금 반환을 기다리던 세입자들의 희망이 무너지게 됐다.

또한 인천 미추홀구에서는 건축업자 남씨가 공인중개사 등과 함께 공동주택 2,700여 채의 세입자 533명에게 전세보증금인 430억을 받아 가로챘던 사건이 있었다. 이들은 2021년 3월부터 미추홀구 일대의 아파트와 빌라 등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며 피해자를 양산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4명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하루하루 망가진 삶 속에서 살고 있다.

#전세사기,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자!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전세사기, 그저 당할 수만은 없다.

우선 집을 고를 때 내가 보고 있는 집이 강통주택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만약 내 보증금이 2억 원인데 집값이 2억 2천만 원이라면 피해야 한다. 이렇게 보증금이 집값과 맞먹는 수준이라면 최대한 거르는 것이 좋다. 또한 임대인의 경제력, TV 출연 등의 정보에 혹하면 안 된다. 이런 정보들은 전세사기가 벌어진 이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도 가입하는 것이 좋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져주는 상품이다.

임대인을 확인할 때도 이 임대인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등기부등본 임대인이 계약 당사자인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신분증을 확인 후 대리인 확인 절차를 거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임대인을 대신해서 대리인이 올 때는 임대인의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는 서류들을 확인하고 임대인과의 유선 통화를 통해 계약 내

용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한 전세보증금을 반드시 임대인 명의의 통장에 지급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의 요청으로 대리인 계좌로 입금해야 한다면, 특약사항에 ‘임대인의 요청에 따라 대리인 계좌로 입금하게 되었음’을 명시해야만 한다.

계약한 직후에는 전세 계약 당일 잔금을 치르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 만약 임대인을 변경하는 내용의 등기가 접수됐다면 ‘신청사건 처리 중’으로 명시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 잔금을 지급하지 말고 어떤 등기가 접수됐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이 등기부등본은 이사 당일 뿐 아니라 2~3일 뒤까지도 살펴보는 것이 좋다. 그리고 계약서를 쓸 때, 특약사항을 넣어 계약 체결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변경, 근저당 설정 등의 행위를 일절 하지 않기로 명시해야 한다. 또 이중계약을 막기 위해서 기존 세입자가 이사했는지 확인하고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새로운 보금자리를 구하기 위해선 큰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을 아끼는 전세사기에 휘말리지 않도록 이

러한 대처 방안들을 잘 숙지하길 바란다.

글 - 김채린 수습기자 kl3672@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참고] 안심전세포털, 조선일보, 조선비즈



다시 돌아온 불청객, 빈대

최근 우리나라에 빈대가 출몰한다는 소식이 끊이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들은 '빈대 공포'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에서 멸종된 해충이 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일까? 이번 호에서 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빈대 출몰

희귀동물 판매업을 하는 유튜버 '다흑'은 빈대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인천의 한 사우나를 방문했다. 현장에서 사우나의 매트와 바닥 사이 틈에서 어렵지 않게 빈대를 찾아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계명대 신축 기숙사에서 빈대에 물렸다는 학생들이 나왔다. 계명대 익명 게시판에 따르면 기숙사에 사는 한 학생이 빈대

인해 ▲간지러움 ▲두드러기 ▲고열로 대학병원을 찾았다고 호소했다. 빈대가 나온 침대는 영국 국적의 학생이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따라 대학 전체에 방역을 실시했다.

9월 대구시 계명대 기숙사, 인천 사우나를 시작으로 수도권 곳곳 빈대가 출몰했다. 빈대는 납작한 타원형 몸통에 다리가

6개 달렸으며, 몸길이 6~9mm가량의 작은 곤충이다. 모기, 머릿니와 마찬가지로 포유류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흡혈 해충의 한 종류다. 이런 빈대는 1970년대 초반 자취를 감췄고 서울에서는 2008년 이후 빈대 발생 보고가 없었다. 15년 만에 서울에 출몰해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0월 31일 기준 민간 방역 업체를 조사한 결과 서

울 25개 구 중 18개 구에서 빈대 출현이 확인됐다. '베드버그'로 알려진 빈대는 피를 빨지 않아도 성충이 6개월 정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악명 높은 바퀴벌레나 개미보다 박멸이 어렵다.

빈대, 해외의 영향?

유럽에는 공중보건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빈대의 습격이 잦다. 영국의 런던 지하철에서 좌석 틈새 득실거리는 빈대 동영상도 퍼지곤 했다. 또한 프랑스는 ▲영화관 ▲도서관 ▲학교 등 잇따라 빈대가 발생하고 있다.

유럽과 미국은 이런 빈대를 박멸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침대, 카펫, 소파를 많이 사용해 자연스럽게 좋은 서식처 환경이 마련됐다. 한국도 마찬가지로 70년대에 비해 주거 형태가 서구화됐으며 빈대 발생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

측한다.

지금 발견된 빈대는 국가 간 ▲교역 ▲여행 ▲이민 등의 증가가 이유로 꼽힌다. 또한 DDT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것과 동시에 빈대의 천적인 바퀴벌레의 개체 수가 줄어든 것도 원인이 됐다. 해외에서 유입된 빈대는

살충제 저항성이 있으며 좁은 틈에 은신하는 습성이 있다. 빈대는 낮에 벽 틈이나 침대 이음새에 숨어 있다가 밤에 나와 사람의 피를 빨다. 이런 빈대의 출몰은 고시원, 숙박시설 등의 일부 장소의 위생 문제가 불러일으켰다는 의견도 존재한다.

빈대에 물린다면, 증상은?

피부에 일렬이나 원형으로 모기 물린 자국이 생겼다면 빈대를 의심해 볼 수 있다. 빈대는 질병을 옮기지 않지만 물린 후에 주로 피부 가려움을 호소한다. 빈대의 흡혈량이 많다면 고열과 빈혈을 동반한다. 가려움이나 염증이 심한 경우 병원에 방문해 의사의 처방에 따라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

빈대와 모기로부터 물린 자국은 비슷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다르다. 빈대에 물린 자국은 3~5개의 집단으로 나타난다. 빈대는 모기에 비해 혈관을 찾는 능력이 부족해 최대한 많이 흡혈을 시도한다. 또한 빈대가 모기보다 침이 굵고 흡혈하는 양이 10배 많기 때문에 자칫빛의 붉은 발진을 남긴다. 빈대에게 물린 자국은 크기가 다양하다. 모기의 경우 1~2마리라서 크기가 다양하지 않지만 빈대는 어린 개체부터 성충까지 모든 빈대가 집단적으로 흡혈을 하기 때문에 여러 크기의 자국을 확인할 수 있다.



빈대 흔적 조사 방법

빈대는 사람이 발견하기 어렵지만 부산물이나 배설물 등을 통해 빈대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빈대 물림 관련 증상으로는 ▲알 탈피 흔적 또는 연한 노란색 점들 ▲침대 시트나 매트리스에 붉은 얼룩 ▲어두운 반점, 등 배설 흔적이 있는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빈대 흔적 단계에 따라 심각성을 판단한다. ▲1단계 침대 한 곳에서만 확인 ▲2단계 침대 근처 테이블이나 서랍장에서 발견 ▲3단계 벽과 맞닿는 곳에서 발견 ▲4단계 콘센트에서 발견 ▲5단계 벽과 천장에서 빈대 흔적 발견이다. 여러 곳에서 발견되면 될수록, 침대에서 멀수록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빈대 박멸?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라는 속담이 있을 정도로 빈대는 박멸이 쉽지 않다. 하지만 빈대의 유일한 약점은 열이다. 빈대는 약에 내성이 있지만 열은 이기지 못한다.

모든 침구류와 옷을 세탁한 다음 건조기에 넣어서 돌려야 한다. 빈대는 50도 이상의 고온에서 완전히 박멸된다. 진공청소기를 통해 청소를 자주 하고 스팀다리미를 사용해

열을 가하는 행동은 알까지 박멸할 수 있다. 집에서 빈대 출몰을 예방하기 위해선 해외여행이나 외출 이후 가방이나 옷을 철저히 방역하는 것이 중요하다. 세탁할 수 있

는 모든 것은 뜨거운 물로 세탁하며 세탁할 수 없는 것은 비닐봉지에 담은 후 살충제를 분사해 2~3일 동안 비닐봉지에 담아두는 것이 좋다.

빈대 출몰 대책은?

개인의 위생이나 방법으로 빈대의 출몰을 막기에는 쉽지 않다. 프랑스의 경우 개인의 방역으로 해결이 안 될 경우 전문 업체의 개입이 필요해 정부가 보조금 지원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또한 빈대는 부유층, 빈곤층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으며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한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빈대의 제거 과정에서 빈부격차가 발생하기도 한다. 모든 가정

빈대 제거를 위한 용품을 가지지는 못한다는 것이 문제다.

프랑스 호텔 업계는 침대 머리 부분에 빈대를 유인하는 페로몬 방출 장치를 설치하며 빈대가 포착되면 이메일을 통해 빈대 탐지를 해 주는 AI 기기를 도입했다. 이 기기는 일부 대형 체인 호텔에서 사용됐으며 그 효과를 입증했다.

빈대에 대한 불안감이 커져 질병청이 지

난 1일부터 공항 출국장과 해외 감염병 신고센터에 빈대 발생 국가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해충 예방 대책을 안내하고 있다. 또한 빈대 확산 대응을 위해 3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대책본부를 꾸려 전국의 빈대 신고 상황을 파악하는 빈대 현황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빈대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늘어 간다. 이를 막기 위해 지자체는 더 확실

한 대응 방법을 제공해야 하며 시민들도 개인위생에 신경 쓸 필요가 있다. 빈대 출몰이 의심될 시 국민콜 110이나 각 지방자치단체 보건소에 신고하면 된다.

글 - 김다운 기자 kijg99@sungkyul.ac.kr

[참조] - 조선일보, 중앙일보

창업지원단을 소개합니다!

아이디어가 있으면 누구든 창업을 도전할 수 있는 시대가 열리면서 창업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창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기술과 지원이 필요하다. 이번 호를 통해 본교의 창업지원단에 대해 알아보고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아이디어에 상상의 날개를 달아보자.

#창업지원단

본교 창업지원단은 SKU 3C(Christianity, Creativity, Commitment)형 창업 인력 양성을 목표로 ▲창업강좌 ▲창업동아리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 ▲창업 아이템 사업화 지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 사소한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기업부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큰 기업까지 다양한 창업을 시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창업 계층과 창업 아이템의 다양성을 증대하고, 지역 대학의 참여를 확대하며 다양한 지역연계를 활성화하고 있다. 또한 창업기업 교육, 멘토링, 지원체계를 구축해 역량을 강화하고 우수 창업 기업을 양성한다.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센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교내 창업에 대한 인식 개선과 창업문화 확산을 위해 프로그램과 특강을 운영하며 대학 내 창업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창업 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업을 희망하거나 관심 있는 예비 창업자를 지원하여 창업 마인드 확산 및 기업을 정신 고취, 학내 창업 네트워크 형성 및 활성화를 도모한다. 이 외에도 재학생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분야별 창업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화 과정을 체험할 수 있는 창업캠프를 운영하고 있다. 또,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진행하여 우수한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연계될 수 있도록 창업 기회의 장을 마련하고 있다.

#창업보육센터

창업보육센터는 사업성 있는 창업아이템을 지닌 예비창업자에게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입주기업을 모집하여 창업을 위한 작업 공간을 임대해 준다.

#학생 창업 사례

창업동아리를 통해 학생들의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

동아리 <RP커뮤니케이션-짐키미>

해외여행 시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하물 수령 게이트, 수취 예상시간, 수하물 사고 알림 등을 제공하는 항공 옵션 서비스를 제공한다.



동아리 <홈콕>

한국의 카테일 문화를 발전시키고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해 결성하여 카테일과 함께하는 즐거운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는 브랜드이다. 전문 카테일 바의 퀄리티를 집에서 즐길 수 있도록 올인원 카테일 키트를 제작해 판매한다.



글 - 김정민 수습기자 kjm020102@sungkyul.ac.kr
사진/ [참조] - 본교 홈페이지

자랑스러운 성결인

Q 현재 무슨 일을 하고 계신가요?



이우용 '홈콕' 창업가

저는 본교 체육교육과를 졸업 후 현재 카테일과 함께하는 즐거운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는 브랜드 '홈콕'을 창업한 사업가로 일하고 있습니다. 카테일을 마셔본 분들은 많으실 수 있지만 직접 카테일을 만들어 보신 분은 많지 않습니다. 카테일은 전문 바텐더가 만든다는 인식 때문에 직접 만들어 볼 생각을 쉽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직접 만들어 마시는 카테일의 재미와 특별한 순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필요한 제품 기획에서부터 제조, 유통, 수입, 수출, 마케팅 등 전반적인 업무를 직접 하고 있습니다.

Q 창업을 하게 된 계기는?

2020년도 여름에 여자친구와 강릉에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하루 종일 재밌게 놀고 집에 들어온 저희는 이대로 자기 아쉬워 편의점으로 향해 재료를 사와 유튜브를 보면서 직접 카테일을 만들어 마셨습니다. 이때 직접 만들었던 카테일이 전문 바텐더가 만든 것보다 맛있을 수 없겠지만 더 특별하고 재밌었던 추억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둘이서 소소하게 카테일을 만들어 마시는 취미가 생겼고 이렇게 재밌고 소중한 순간을 많은 사람이 경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카테일과 함께하는 즐거운 라이프스타일을 소개하는 브랜드 홈콕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Q 창업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거나 어려웠던 점이 있었는지, 그럴 때마다 어떻게 이겨

내 왔는지?

창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역시나 금전적인 문제였습니다. 창업을 막 시작했을 때는 제가 군대 전역하고 막 복학한 학생이었기 때문에 통장에는 2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만 원 이상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생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포기하기엔 너무 아쉽고 후회할 것 같아 무리해서라도 제품 촬영이나 상세페이지 제작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진행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기획한 제품을 생산도 하지 않은 채로 섰었죠. 다행히도 펀딩은 2,840% 달성률을 기록하여 생산을 할 수 있었고 금방 완판되었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시점이 여러 번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으니까 신기하게도 지인, 학교, 지지해 주는 후원자분들의 도움과 예기치 못한 성과로 계속해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Q 성결대학교에 와서 어떤 점이 제일 좋았는지?

저희 성결대학교는 창업을 꿈꾸는 학생에게 정말 아낌없이 지원해 줍니다. 펀딩을 성공했다고 해도 비용이 들어가는 제조 시기부터 판매가 완료되고 정산금을 받기까지는 생각보다 엄청 오래 걸립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있고 자금이 없어 출시를 하지 못하던 상황에 학교로부터 시제품 제작비 지원을 받아 출시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펀딩 목표 달성률 7,105%를 기록하여 신제품 출시를 성공적으로 이루었습니다. 거기에 홍보비 지원까지 받아 기존 제품은 네이버에서 카테고리 검색 시 1순위로 노출되어서 판매에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학교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성공적인 신제품 출시와 원활한 기존 제품을 판매할 수 있었습니다.

Q 학창시절 생각나는 활동이나 일은?

이라경 교수님의 '웹 MD 육성 교육과정' 강의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지금도 많이 부족하지만, 그 당시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이라경 교수님 강의를 들으면서 많은 것

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강의를 통해 디자인 툴을 다루는 방법에서부터 마케팅 전략, 스토어 운영 실전 기술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초 내용들을 많이 배우고 실제로 운영하고 있던 사업에 적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감각과 아이디어로만 사업을 운영했었다면 이 강의를 계기로 관련 지식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이론을 바탕으로 전략적인 사업 운영을 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 것 같아요. 인터뷰를 통해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이라경 교수님!

Q 창업을 꿈꾸는 재학생들에게 한마디

창업은 생각보다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나의 이야기에 공감해 줄 사람을 찾는 일인 것 같아요. 저도 제가 경험했던 재밌고 소중한 순간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새로운 즐거움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해 줍니다. 그때 정말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자주 밤새우기도 하고 하루하루가 위기의 연속이기도 하지만 참 매력적인 일이라고 느끼고 즐기면서 일할 수 있지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분명하고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써 보람을 느낄 수 있다면, 한번 사람들에게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건 어떨까요?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감사하게도 인터뷰를 요청해 주셔서 질문에 답을 하고 있지만 저도 열심히 길을 찾고 있는 새내기 창업가입니다. 그럼에도 조금이라도 먼저 창업을 한 선배로서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 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창업에 대해 고민하거나 창업을 꿈꾸시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저도, 후배님들도 함께 성장해서 이후에 성장한 사업가로 마주해서 이야기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글/인터뷰 - 김채린 편집장 cofls787@sungkyul.ac.kr



아무튼 1호선

용산역에서 쉬어가자!

개강 이후 한 학기 동안 열심히 달렸을 학우들. 이제는 종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호에서는 기말시험을 끝내고 쉬어갈 시간이 필요할 학우들에게 '용산역' 근처의 문화생활과 함께 휴식까지 할 수 있는 장소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국립중앙박물관

첫 번째로 소개할 곳은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과거와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감동의 공간. 국립중앙박물관이다. 국립중앙박물관은 경복궁에서 용산으로 이전해 2005년 개관한 이래 국민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으며 많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시대와 주제별로 제시된 6개의

상설전시관 ▲다양한 내용을 선보이는 특별전시관 ▲관람의 이해를 돕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 ▲오감으로 즐기고 배우는 어린이박물관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 ▲첨단기술을



활용한 실감콘텐츠 등을 마음껏 누리고 즐길 수 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누구나 언제든지 찾아와 머물다 갈 수 있는 휴식의 장소다. 모든 것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서 박물관은 잠시 쉬어가도 되는 곳, 뒤를 돌아봐도 되는 곳이 되어준다. 한 학기를 마치느라 지쳤을 학우들이 전시를 천천히 감상하면서 위안을 받고, 성찰을 하고, 또 다른 시작을 할 영감을 얻을 수 있길 바란다.



#이촌한강공원

이촌한강공원은 금호동의 중랑천교와 이촌동의 원효대교 사이 강변 북단에 위치해 있다. 호안가 주변을 따라 갈대, 억새, 코스모스가 철에 맞춰 피어나서 시민들의 산책과 조깅코스로 자주 이용된다. 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 광장과 X-게임장 ▲국제 규모의 인라인스케이트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등의 공간이 여가 및 스포츠 공간으로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필자는 종종 한강공원을 찾는다. 날이 좋을 때 친구들과 피크닉을 하기도 하고, 생각이 많아 걷고 싶은 날 한강을 바라보며 다리가 아파올 때까지 걷기도 한다. 요즘은 실외 활동을 하기에 날이 많이 춥지만, 겨울이 지나 날이 풀린다면 이촌한강공원에서 시간을 한번 보내보는 것은 어떨까.

#아모레퍼시픽미술관

아모레퍼시픽미술관은 여성, 차, 공예 관련 미술품을 중심으로 한국 고미술과 국내외 현대미술을 수집, 연구, 전시한다. 이와 함께 관련 연구자 및 학회, 젊은 작가의 지원을 통해 '일상 속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열린 공간'을 지향하며 대중과 소통하기 위해 설립됐다.

2023년 8월 29일부터 2024년 1월 28일까지 미술관 1~7 전시실, B1 로비, 교육실 등에서 [LAWRENCE WEINER : UNDER THE SUN] 전시회가 진행된다. 이번 전시는 현대 미술의 선구자인 로렌스 위너의 국내 첫 개인전으로, 2021년 12월

작가가 타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대규모 전시다. 위너는 언어를 재료 삼아 구성된 '언어 조각'으로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만큼, 이번 전시에서도 작가의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주체와 대상', '과정', '동시적 현실'의 세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한 47점의 언어 조각들을 구성했다. 언어가 갖는 해석의 다양성을 활용한 작가의 언어 조각을 통해 학우들의 시야가 한층 더 확장될 수 있길 바란다.

글 - 권경아 수습기자 kka468@sungkyul.ac.kr

사진 / [참조] -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한강공원 홈페이지,

아모레퍼시픽미술관 홈페이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꽃

이번 호에서는 김영하 작가의 『검은 꽃』을 소개하고자 한다.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아픔 속에서 처절하게 살아남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삶을 되짚어보는 것은 어떨까.

#1 검은 꽃



이 책은 제1부, 제2부, 제3부, 에필로그 순으로 이야기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 후에 남진우 시인의 해설, 서영채 문화평론가의 작품론 순으로 마무리된다.

『검은 꽃』이 다루고 있는 것은 연극과

영화 등으로 널리 알려진 애니깽 이야기다. 1905년 천여 명의 한국인들이 계약노동자로 멕시코에 팔려 가 모진 고생을 했다는 것이 줄거리다.

애니깽 이야기는 20세기 전반기에 다수의 한국인이 겪어야 했던 민족적 수난사의 일부이다. 이를 최초로 극화했던 김상열의 드라마 <애니깽>(1988)도, 그리고 이 대본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김선영의 여섯 권짜리 장편소설 『애니깽』(1990)이나 김호선의 영화 <애니깽>(1996) 모두 기본적으로는 이 같은 수난의 역사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

애니깽 이야기가 다시 김영하 작가에 의해 장편소설로 쓰였다. 그의 작품들을 봤을 때, 저자가 여태까지 그려왔던 세계는 민족사나 수난의 드라마와는 매우 거리가 멀었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예단들

을 비웃기라도 하듯, 어둡고 무거운 이야기의 공간 속을 고속으로 질주하며 다채로운 서사의 향연을 만들어냈다.

저자는 이번 작품을 통해 역사 속에 묻혀 흔적조차 사라져버린 개개인의 삶을 조망했다. 역사소설의 향을 내뿜으면서도 이 책은 민족이란 이름 대신 운명 앞에 놓인 인간을 그려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곱씹어냈다.

#2 저자 '김영하'에 대하여



이 책의 저자 김영하 작가는 1968년 강원도 화천에서 태어나 군인인 아버지를 따라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며 성장했다. 잠실의 신천중학교와 잠실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경영학 학사와 석사를 취득했다. 한 번도 자신이 작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1990년대 초에 PC통

신 하이텔에 올린 짤막한 콩트들이 뜨거운 반응을 얻는 것을 보고 자신의 작가적 재능을 처음으로 깨달았다. 1995년 계간 '리뷰'에 『거울에 대한 명상』을 발표하며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해 장편소설 『살인자의 기억법』, 『너의 목소리가 들려』, 『퀴즈쇼』 등을 집필했다. 문학동네작가상, 동인문학상, 김유정문학상 등을 수상하며 그의 재능을 인정받았고, 저자의 작품들은 현재 미국, 프랑스, 독일 등 여러 나라에서 활발하게 번역 출간되고 있다.

곤 '김영하 작가'의 이름 그 하나뿐이었다. 그러나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이 책을 읽는 데 어려움은 없었다.

#4 기억에 남는 글귀, 구절이나 장면

필자가 생각하는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은 주인공 이정희의 의식이 변화하는 장면이다. "이정희는 말했다. 거기에서도 저 조선처럼 반상과 노소, 남녀의 구별이 이리 엄할까. 우리가 탄 이 배를 보라. 양반이든 상인이든 줄을 서야 밥을 먹는다." 이 장면을 통해서 이정희는 계급 사회였던 조선에서 '배'라는 공간으로

변화함에 따라 생존에 있어 계급은 필요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후 삶의 주체는 자신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처럼 나의 삶은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었는지 필자가 반성하게 되는 장면이었다.

2023년도 어느덧 저간다. 지난 한 해 간나의 삶은 누구를 위한 삶이었으며, 그 삶은 잘 이뤄졌는지 되짚어보며 마무리해보는 것은 어떨까.

글 - 유진규 수습기자 thanfaktmxj@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이미지, yes24

[참조] - 검은 꽃, yes24

#3 이 책을 읽게 된 이유

이 책은 필자 가족의 추천으로 읽게 된

책이다. 소설과는 거리가 멀었던 필자는 이 책을 읽는 데 있어 아는 배경지식이라



지브리를 아세요?

지브리는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로 컴퓨터 기술을 주로 사용하는 타 애니메이션 제작사들과 달리 일일이 손으로 그림을 그려 지브리만의 아날로그적이고 서정적인 감성을 표현한다. 이러한 지브리만의 감성에 빠진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다. 이번 호에서는 지브리만의 감성이 느껴지는 영화를 추천하고자 한다.



제목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개요 ▲애니메이션
개봉 2023.10.25
출연 배우 산토키 소마, 스다 마사키, 시바사키 쿠키 등

#새로운 세계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본, 주인공 마히토는 입원 중이던 병원의 화재로 인해 어머니를 잃게 된다. 아버지의 재혼으로 도쿄에서 시골로 내려오게 되지만 마히토는 아직 어머니를 잊지 못한 상태에서 새어머니가 생긴 것에 복잡한 감정을 느낀다. 그런 마히토에게 계속해서 한 왜가리가 찾아오는데 이 왜가리에게서 자신의 돌아가신 어머니에 대해 듣게 된다. 마히토는 이 왜가리를 잡기 위해 활을 만들었고, 갑작스레 새어머니 나츠코가 사라진 것을 계기로 활을 들고 찾으러 나선다.

나츠코를 찾는 도중 아주 큰 저택을 발견한 마히토. 왜가리의 목소리를 따라 그곳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마히토와 왜가리, 하녀인 키리코까지 그곳에서 이세계로 빨려 들어가게 된다. 이세계에 가게 된 마히토는 나츠코를 찾으며 알 수 없는 정체의 와라와라 그리고 이 세계 속 키리코를 만난다. 마히토는 이 세계의 키리코와 지내며 또 다른 등장인물인 히미라는 이를 알게 된다.

마히토는 나츠코를 찾으며 식인 앵무새 군단에 잡힐 위기에 처하지만, 간신히 히미의 도움으로 목숨을 구한다. 이후 히미와 함께 나츠코를 찾게 되지만 또 다시 위기에 처해 결국 히미와 마히토는 정신을 잃는다.

쓰러진 마히토는 꿈속에서 한 할아버지를 마주한다. 그 할아버지는 이세계를 지키는 사람으로 마히토를 자신의 후계자로 삼았다고 말한다. 눈을 뜬 마히토는 사라진 히미를 찾으러 가기 위해 앵무새 군단을 쫓다 꿈속의 할아버지를 만나게 된다. 할아버지는 도로 탐을 쌓아 하루하루 이세계를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앵무새 왕이 할아버지의 탐을 칼로 박살 내며 이세계의 균형이 깨져 세계가 사라지려 한다. 과연 마히토는 무너져가는 세계에서 나츠코를 찾아 원래 세계로 돌아갈 수 있을까?

#미야자키 하야오의 은퇴 반복작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는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은퇴를 반복하면서 만든 작품이다. 이 전의 작품들과는 다른 느낌으로 난해하고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이 많다. 이처럼 영화는 대중적인 요소의 결합과 불완전한 이야기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으로 보면 이는 곧 사람에 따라 다른 해석과 고찰을 통해 각자의 세계를 완성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영화를 보고 작품에 대해 생각하며 모두가 옳다고 생각하는 해석이 아닌 본인만의 해석을 만들어보고 싶다면 이 영화를 추천한다.



제목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
개요 ▲애니메이션
개봉 2002.06.28
출연 배우 히이라기 루미, 이리노 미유 등

#낮과 밤이 다른 세계

도시에서 시골로 이사 오게 된 치히로. 치히로의 가족은 차를 타고 이사를 하던 중 한 터널 앞에 비석이 세워져 있어 걸어 들어가게 된다. 그 터널 너머에는 아주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잔뜩 널려 있는 가게들이 있었다. 가게들의 주인은 없었지만, 나중에 돈을 지급하면 된다는 치히로의 부모님은 음식을 먹고, 이 와중에 치히로는 주변을 돌아다니며 구경한다.

그때, 치히로의 앞에 단발머리의 소년이 나타나 곧 날이 어두워지면 이곳에 있으면 안 된다는 치히로의 손을 잡고 뛴다. 한참을 뛰다가 치히로가 다시 부모님께 돌아갔을 때는 이미 부모님은 돼지가 되어 있었고 불이 켜지기 시작한 가게에는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실 터널 너머의 세계는 밤이 되면 신들이 온천을 즐기러 오는 곳으로 인간에게는 출입 금지구역이었다.

치히로는 들어왔던 터널로 돌아가려 하지만 길이 물속에 잠긴 후였다. 공포에 떨고 있는 치히로의 앞에 아까의 단발머리 소년 하쿠가 다시 나타난다. 하쿠는 치히로가 온천탕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된다.

치히로는 온천탕의 주인 유바바의 허락으로 치히로 대신 센이라는 이름으로 신들의 세계에서 일하게 된다. 이에 하쿠는 절대 원래의 이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사실 하쿠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유바바와의 계약을 하고 자신의 원래 이름을 잊어 어쩔 수 없이 계속 유바바의 밑에서 일하고 있던 것이다.

어느 날 유바바가 내린 임무를 하던 하쿠는 크게 다치게 된다. 센은 하쿠를 도우려 하지만 센의 앞길을 막는 가오나시라는 탐욕스러운 괴물이 등장한다. 과연 치히로는 무사히 부모님과 함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시간이 흐르면 바뀌는 영화

어린 시절에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는 독특한 캐릭터들과 비슷한 나이의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지만 어떻게든 위기를 벗어나려는 게 재밌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성인이 되고 영화를 다시 봤을 때 영화에 숨겨진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실 센이 맡았던 오물의 신은 강의 신으로 급변하는 자본주의 사회로 인해 파괴되는 자연 환경을 보여주며 사람들의 환경의식을 깨워주려 했던 것이다. 또, 절제를 모르고 돼지가 된 부모님과 자신의 모습을 잃은 채 탐욕에 가득 찬 가오나시의 모습을 통해 물질 만능주의를 비판하고 있다. 영화에는 이외에도 곳곳에 다양한 의미가 담겨 있어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가 있다. 이렇듯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의 메시지가 담긴 영화, 지브리의 작품들을 한 번쯤 보는 것을 추천한다.

글 - 지연서 수습기자 yeonso0127@sungkyul.ac.kr

사진 - 네이버 영화

[참조] - 네이버 영화, 씨네 21



이번 크리스마스엔 눈이 올까요?



크리스마스, 누군가는 다가오는 날짜를 세며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고, 누군가는 오지 않았으면 하는 날이기도 하다. 크리스마스는 모든 게 특별해 보인다. 음악도 캐롤을 찾아 듣게 되고, 그날따라 케빈이 보고 싶어 영화 <나 홀로 집에>를 보기도 한다. 399호를 통해 얼마 남지 않은 그날을 기다리며 크리스마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일 년 중 가장 설레고 행복한 날 크리스마스, 왜 12월 25일일까?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축제다. 신약성경에서 그리스도의 태어난 날이 확인되지 않아 그리스도의 생일이 아닌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축하하는 날이 됐다.

크리스마스가 언제 시작됐는지 정확한

연대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는 태양 신앙의 성격을 가진 미트라스라는 종교가 전해져 왔다. 미트라스교에서는 '빛의 축제'라는 신앙상의 소중한 행사를 했다. 빛의 축제가 행해지는 것은, 일 년 중 가장 낮이 짧아지는 동지. 이날을 경

계로 해 다시 낮이 길어져 가는 즉, 태양의 힘이 강해져 가는 것을 축하하는 이 동지가 바로 12월 25일에 해당돼 이날이 크리스마스가 된 것이다.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색은 왜 빨간색과 초록색일까?

그 이유는 종교적인 유래와 역사적인 유래로 나눠 살펴볼 수 있다. 먼저 종교적인 유래에 따른 이유는 12월 25일은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이 또한 예수의 생애와 관련이 있다. 빨간색은 예수가 흘린 혈액 '보혈'을 상징하는 반면, 초록색은 겨우내 푸르게 살아있는 것처럼 예수의 영원한 삶과 그 잠재력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 크리스마스의 상징색인 빨간색과 초

록색은 한 연극의 이야기에서 따왔다는 가설이 있다. 중세 유럽 당시 종교극이 유행했는데 그 중 아담과 이브의 이야기인 연극 <낙원극>에서 초록색은 아담과 이브가 살던 에덴동산과 선악과 나무를 뜻하고, 빨간색은 그들이 따먹은 선악과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에 더불어 중세 시대 교회에서는 소나무에 빨간 공을 달아 선악과를 연줄해 빨간색과 초록색이 크리스마스를

상징하는 색이 됐다고 전해진다.

역사적인 유래를 살펴보면 일부 역사학자들은 크리스마스 상징색이 빨강과 초록이 된 유래는 종교적 유래보다 훨씬 전인 고대 로마 시대로부터 굳어진 인류적 '색'이라고 주장한다. 로마 시대에는 농업의 신을 숭배했는데 크리스마스 무렵인 12월 17일과 23일 사이에 농업의 신에게 풍년과 안녕을 기원하는 축제인 '농신제'가 열

렸다. 당시 사람들은 사시사철 푸른 상록수를 풍년의 상징으로 삼고 호랑가시나무로 화환을 만들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면서 상록수의 초록색과 호랑가시나무의 빨간 열매가 고대 로마의 축제를 상징하여 크리스마스를 대표하는 색이 됐다고 한다.



#이번 크리스마스엔 매년 보는 <나 홀로 집에> 말고 다른 영화 어때요?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영화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나 홀로 집에>다.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영화 <윤희에게>를 추천한다. 이 영화의 배경은 일본 삿포로의 오타루다. 이 지역은 눈이 매우 많이 내리는 지역이기에 배경으로 선택됐다. 윤희가 사는 한국은 겨울이지만, 눈도 내리지 않

는 건조한 세상으로 묘사되는 반면 하얀 눈이 내리는 오타루에 사는 준은 하얀 눈 속 진실을 숨긴 채 살아간다. 이렇게 대조되는 세상을 연출하지만 둘의 겨울은 차가운 현실이라는 공통점을 띄고 있다. 윤희는 지친 현실을 잠시 벗어나고자 오타루로 여행을 떠나게 된다. 윤희의 딸 새봄은 윤희에

게 편지를 보낸 준을 수소문 끝에 찾아 만나기로 하지만 새봄은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는다. 그 후 오랜 시간이 지나 준과 윤희는 만나게 되고, 둘의 만남을 통해 윤희는 서울로 돌아와 용기를 가지고 다시 꿈을 향해 달려간다.

#여기 가면 인생샷 건질 수 있대!

매년 크리스마스만을 위해 예쁘게 꾸며놓는 곳들이 있다. 여기가 한국인지 유럽인지 헷갈리게 하는 곳부터 한국 정서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조화롭게 섞어서 꾸며놓은 곳까지 다양한 크리스마스 핫플레이스를 소개한다.

첫 번째 장소는 가장 먼저 오픈을 알린 더 현대 서울 '크리스마스 마켓'이다. 더 현대는 설립 후 매 겨울 크리스마스 마켓을 진행해 많은 사람들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특히 작년 크리스마스 마켓은 많은 인기를 끌어 발 디딜 틈 없는 인파로 인해 웨이팅이 매우 길었다. 이 점을 고려해 이번 해에는 원활한 관람과 안전을 위해 현장 웨이팅이 아닌 온라인으로 사전예약을 받아 예약에 성공한 사람만 입장할 수 있는 사전 웨이팅 시스템으로 보완했다. (단 예약 취소 고객이 생길 시 현장 웨이팅이 가능하다.)

11월 1일, 오픈과 동시에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입장 후 펼쳐지는 ▲다양한 컨셉을 가진 상점 ▲대형 트리 ▲다양한 포토존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기 충분했다. 또한 2023 크리스마스 마켓에서만 구입이 가능한 한정 굿즈들을 만나볼 수 있으며, 특히 해리의 꿈의 상점 '곰돌이 해리'를 주제로 한 다양한 굿즈들이 인기 제품이다.

만약 사전 웨이팅에 실패했다면 삼성역



에 위치한 현대백화점 무역센터를 가보자. 이곳은 더 현대와 동일한 컨셉을 가지고 있지만, 사전 웨이팅이 필요 없다. 앞서 언급한 해리의 꿈의 상점 '곰돌이 해리' 굿즈 또한 팔고 있어 굿즈만을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곳에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더 현대보다 규모가 작다는 것이지만 작은 곳을 아기자기하고 알차게 꾸며놔 단점을 보완했다.

두 번째 장소는 전라남도 여수에 위치한 리조트 라테라스의 '윈터빌리지'다. 이곳은 11월 3일부터 24년 1월 31일까지 운영하며,

영업시간은 17시부터 22시다. 윈터빌리지는 다양한 포토존은 물론이며, ▲로맨틱한 회전목마 ▲짜릿한 범퍼카 ▲카니발 게임존 등 다양한 어드벤처도 즐길 수 있다. 또한 인공눈을 뿌려 눈이 오지 않는 날에도 눈과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으며, 주말에는 불꽃축제를 즐길 수 있다. 윈터빌리지의 장점은 리조트 내에 자리 잡고 있지만 비투스객도 요금을 지불한 후 관람이 가능한 점과 큰 규모를 가진 야외라는 점인데, 실내가 아닌 실외이기에 더욱 유럽 크리스마스 마켓을 연상케 한다.

이용 팁은 반짝이는 조명이 낮보다 더 잘 보이는 해가 진 후에 방문하는 것이다. 또한 입장 티켓은 현장 판매 가격보다 온라인 예매가 훨씬 저렴하니 온라인으로 미리 예매하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한다.

크리스마스는 특별한 생일과 같다고 생각한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날이기에 이날만큼은 평소와 달리 특별한 무언가를 하고 싶고, 자신이 함께 있으면 편한 사람과 보내고 싶어 한다. 이번 크리스마스엔 누구와 무엇을 하고 싶은지 또 어디를 가고 싶은지 고민해 보는 것이 어떨까.

글 - 이현림 수습기자 lks070812@sungkyul.ac.kr

사진 - 스윗빈리즈 블로그, 일담 지니로그,

라테라스 공식 홈페이지

[참조] - 라테라스 공식 홈페이지, 오픈 디스커스



우리는 탕후루의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모두 학창 시절에 친구들과 어울리며 즐겨 먹었던 먹거리가 하나쯤 있을 것이다. 요즘 젊은 층 사이에선 과일꼬치에 설탕 코팅을 입혀 만든 '탕후루'가 인기다. 이번 호에서는 최근 떠오르는 인기 먹거리인 탕후루에 대해 알아보자.

탕후루가 뭐야?

탕후루는 딸기·귤·샤인머스켓·블랙사파이어 등 과일꼬치에 설탕 코팅을 입혀 만든 간식이다. 가격은 보통 1꼬치에 3,000~4,000원 정도다. 탕후루는 원래 중국 북경 지역을 대표하는 간식으로 보통 새콤한 맛이 나는 산사나무 열매를 막대에 꽂아 시럽처럼 끓인 설탕을 입힌다. 과거 중국 황궁에서 약처럼 산사나무 열매와 설탕을 달여 먹었다

는 설도 있고, 과일을 오래 보관하기 위해 설탕물을 과일에 발라 얼려 먹었다는 설도 있다. 중국 북경에서 만드는 탕후루는 과일뿐만 아니라 오이·옥수수·죽발·고추·고등어·게 등 다양한 원재료를 사용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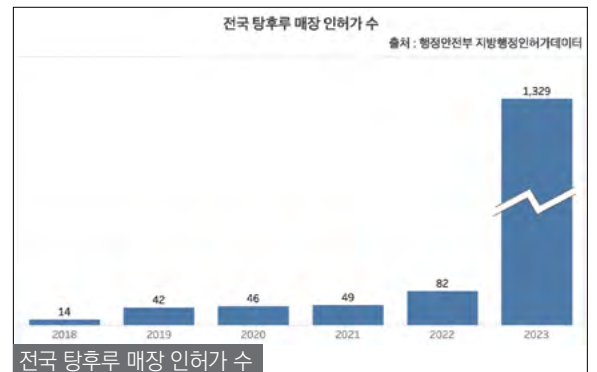
진열되어 있는 딸기·샤인머스켓·블랙사파이어 탕후루

탕후루 열풍, 어느 정도야?

현재 대한민국 젊은 층 사이에선 '식후탕', '마라탕후루'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처럼 최근 발표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통계에 따르면 냉동·간편 조리 식품 분야에서 10대의 인기 검색어 1위가 탕후루, 3위가 아이스 탕후루로 조사됐다. 이에 탕후루를 판매하는 매장도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 탕후루 업체의 매장 수는 2021년에 11개, 2022년에는 43개였는데 올해 들어 10배 가까이 늘어나 전국에 있는 매장이 400개가 넘는다. 또한 금년 7~8월 2달 동안 특허청에 100개가

넘는 탕후루 상표가 등록되기도 했다.

탕후루의 폭발적인 인기에 이색적인 탕후루까지 등장하고 있다. 빙수에 탕후루를 올려 먹는 '탕후루 빙수', 하이볼에 탕후루를 곁들인 '탕후루 하이볼', 마카롱 사이에 탕후루를 끼운 '탕후루 마카롱' 등이 있다. 또한 설탕 대신 대체 감미료를 사용한 '제로 탕후루'까지 등장해 탕후루의 인기를 실감케 하고 있다.



탕후루, 왜 논란거리가 된 거야?

당류가 많이 들어간 과일에 설탕을 입혀 먹는 탕후루가 유행하자, 설탕 과다 섭취로 인한 청소년들의 건강 문제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이에 국회에선 10월 12일에 열리는 국정감사에 왕가탕후루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해 청소년 비만율과 성인병을 줄일 방안이 있는지 등 청소년의 당류 과다 섭취 문제를 따져 물었다. 또한 탕후루를 먹고 난 후 꼬치와 종이컵 등을 길거리에 함부로 버리는 쓰레기 문제도 심각할뿐더러 약 30cm 길이의 탕후루 꼬치는 쓰레기봉투에 버려도 문제다. '탕후루 고슴도치'라고 부를 정도로 꼬치가 길고 뾰족하다 보니 쓰레기봉투를 뚫고 나온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환경미화원은 꼬치에 찔

릴 위험에 놓이고, 일일이 꼬치를 꺾어야 하는 등 수거도 번거롭다. 더불어 탕후루를 소비하는 사람들이 탕후루를 산 뒤 근처 가게로 넘어와 꼬치를 버리거나 바닥에 시럽을 흘리는 등의 일도 잦아져 'NO탕후루존'을 내세우는 가게가 생기기도 했다. 이외에도 탕후루 때문에 화상 사고가 증가했다고 밝혀졌다. 가격이 그리 저렴하지 않은 탕후루를 사 먹기보단 집에서 직접 탕후루를 만들기 위해 설탕물을 녹이다 화상을 입는다는 것이다. 설탕은 녹는점이 185도로 매우 높고, 점착력이 높아 피부에 달라붙기 쉽기 때문에 화상으로 크게 다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국정감사에 출석한 '왕가탕후루' 대표

탕후루 열풍, 어떻게 생각해?

□ 큰 문제 아니야

별꿀 아이스크림, 대만 카스텔라 등이 그랬던 것처럼 시간이 흐르면 자연스럽게 지나갈 거라 굳이 제지할 필요는 없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나 한국은 유행에 민감하고 유행이 빨리 바뀌기 때문에 탕후루 열풍도 금방 열기가 식을 것이고, 그저 지나가는 디저트계의 한 흐름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탕후루 열풍으로 사람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도 너무 과하다는 의견이다. -“**한때의 유행일 뿐**”

자유주의 사회에서 음식을 사 먹는 건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를 제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의견도 있었다. 소비는 자기 절제의 영역이고, 탕후루가 공공재도 아닐뿐더러 판매하는 상품이기 때문이다. 이에 개인이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소비하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인기를 끈다고 제지하면 업주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 있고, 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먹고 안 먹고는 본인의 선택**”

□ 제지해야 해

음식을 사 먹는 게 개인의 선택이긴 하지만, 청소년들은 유행에 더 휘둘리기 쉽고, 어릴 때 나쁜 식습관을 들이면 이를 개선하기 더욱 어렵다는 의견이 있다. 특히 탕후루 열풍이 청소년이나 어린이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다. 탕후루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당뇨병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당히 섭취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어린이, 청소년 등 젊은 층의 당뇨가 빠르게 늘고 있기도 하다. -“**아이들의 건강이 걱정**”

탕후루를 먹고 안 먹고 보다 탕후루 열풍으로 인해 길거리에 널려있는 쓰레기 문제를 걱정하는 의견도 있었다. 거리를 지나다 보면 탕후루 가게 주변에 꼬치와 종이컵 쓰레기가 어마어마하게 버려져 있는 광경을 보았던 적이 있을 것이다. 또한 끈적끈적한 시럽 때문에 바닥이 새까맣게 변하기도 한다. 이러한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쓰레기, 환경 문제가 걱정**”

□ 전문가들의 시선

탕후루를 비롯한 디저트 열풍은 SNS가 만든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과거 별집 아이스크림을 시작으로 대만 카스텔라, 크로플 등 다양한 디저트들이 시장을 휩쓴 건 2010년 초중반 페이스북 등의 SNS가 보편화됐기 때문이다. SNS를 통해 신기한 디저트 사진이나 맛 정보 등이 활발히 공유되면서 디저트 붐도 일었고, 탕후루 역시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을 통해 퍼지며 열풍이 일었다.

또한 탕후루 섭취로 인한 당뇨와 단맛 중독에 주의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탕후루의 당은 당류 중에서도 몸에 바로 흡수되는 '단순당'이기 때문이다. 이에 혈당이 급상승하고, 우리의 몸은 이를 떨어뜨리기 위해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시킨다. 그러다 보면 혈당이 급하게 떨어지고 당뇨 위험이 커진다. 게다가 극강의 단맛을 한번 경험하면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이 나와 행복을 느끼게 해주는데 이는 마약, 알코올 중독자가 쾌감을 느끼는 구조와 같다. 즉 단맛 중독과 금단현상을 겪을 수도 있다.

필자는 탕후루 열풍의 근본적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를 자극적인 맛으로 해소하는 식문화가 형성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일상에서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이를 빠르게 해소할 방법을 찾다 보니 자극적인 식품을 소비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스트레스를 자극적인 식품으로 해소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경각심을 갖고 스스로 조절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글 - 김근형 수습기자 hanangun@sungkyul.ac.kr

사진 - 연합뉴스, 행정안전부

[참조] - 중앙일보, 매일경제

본교 공식 캐릭터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팀 인터뷰

지난 11월 8일(수) 본교 캐릭터 공모전의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공모전은 '성결대학교 구성원 모두가 공감하는 성결대학교의 정체성과 상징성을 담은 캐릭터'라는 주제로 본교를 대표하는 캐릭터를 발굴하는 목적으로 펼쳐졌다. 본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9월 한 달간 신청을 받아 총 69개 작품 중 6개의 작품이 1차 심사에 통과했으며 교내 구성원(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투표를 통해 최종 심사가 이뤄졌다. 그 결과 대상 수상작은 없었으나 최종 심사에 오른 6개의 팀 모두 좋은 결과를 얻었으며 이에 최우수상을 받은 두 팀의 캐릭터와 인터뷰를 이번 호에서 만나보자.



둘기와 짹이



사라(Sarah)

• #둘기와 짹이 •

수상자 한은정(미소 22), 김예은(미소 22), 김도연(미소 22), 임사랑(미소 22)



대표자 한은정

미디어소프트웨어학과 22학번

1. 공모전을 참가하게 된 계기

영상과 디자인 관련한 수업을 수강 중에 교수님의 권유로 참가하게 됐습니다. 지난 수업에서도 성결교회와 관련한 캐릭터 공모전에 참가한 적이 있었는데, 만족스러운 디자인이었지만 아쉽게 입상하지 못해 이번 공모전에서는 조금 더 각오를 다졌습니다.

2. 팀으로 공모전에 참여한 이유

수강하던 수업에서 이미 팀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어서 해당 팀원과 함께 참가한다면 앞으로 진행할 프로젝트에서도 좋은 팀워크를 다질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또한 과 특성상 과제가 적지 않기에 개인으로 참가하는 것은 자료나 보고서, 디자인에 관련된 아이디어의 퀄리티가 기한 내에는 좋지 못한 결과를 낼 것 같아 교수님께 팀으로 참가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쭙보고 함께 참여하게 됐습니다.

3. 각 팀원끼리 어떻게 마스코트를 만들게 됐는지

각자 본교와 관련한 자료들을 수집한 후, 여러 대학 캐

릭터를 띄워놓고 가장 적합해 보이는 키워드들을 나열했습니다. 캐릭터로서의 친밀감, 본교의 이념과 관련된 의미들이 들어있지만 복잡하지 않고 한눈에 본교의 캐릭터 같아 보이는지를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하며 제작에 임했습니다.

처음에는 학생을 주제로 한 인간형 캐릭터를 주제로 했으나, 제가 러프하게 그린 비둘기 캐릭터를 팀원들이 마음에 들어 해 동물형 캐릭터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 캐릭터만 있는 것보다는 서브 캐릭터가 있는 편이 캐릭터의 성격과 둘의 관계를 통해 보여줄 수 있는 친근감을 잘 전해줄 것 같아 서브 캐릭터 '짹이'를 설정하게 됐습니다.

팀원 전부 함께 회의를 진행하고 이를 통해 정리된 이미지를 기반으로 초반에 일러스트레이터로 임사랑 학우가 시안을 제작해 주었지만, 일러스트레이터 특유의 선으로는 원하는 느낌의 친근함을 주기 힘들 것 같아 중간에 노선을 틀어 제가 이미지를 직접 제작하고 다른 팀원들은 회의를 통해 시안 수정에 의견을 주고 자료를 정리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작성하는 데에 힘을 써 주었습니다.

4. 마스코트를 만들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처음 캐릭터 초안을 제작할 때 이름을 두루뭉술하게 비둘기에서 '둘기', 반짹이에서 '짹이'를 따오고 나중에 변경할 예정이었으나, 제작하면서 순수한 둘기와 짹이의 성격에도 직관적인 이름이 잘 어울리는 것 같아 그대로 제

출하게 됐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보다 보니 정이 든 것이 아닐지 하기도 합니다. 캐릭터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에피소드 형식의 만화를 가볍게 그려보며 즐거워했던 것도 기억에 남네요.

또한 학교의 이념, 가치와 캐릭터를 더욱 잘 연결하는 데에 다들 골머리를 싸맸던 것과 이미지를 제작하는 동안 올려주거나 수정해 온 보고서의 내용이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5. 다른 후보작을 보고 어땠는지

저희는 단순함에 주로 힘을 주어서 그런지 다양한 디자인이 나온 점이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캐릭터의 성격이 한눈에 보이는 캐릭터도 친근해서 마음에 들었고, 로고를 직접 드러내는 부분이 있는 캐릭터도 직관적으로 보여서 좋다고 느꼈습니다. 같은 주제로 만든 각각의 캐릭터들로부터 다른 참가자들의 주제를 보는 시선을 알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 됐습니다.

6. 마지막으로 최우수상 수상 소감

초반에 각오를 다지기는 했지만, 쟁쟁한 참가자들 사이에서 상을 받으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열심히 한 부분에서 성취를 낼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 기쁘기도 했지만, 멋진 작품이 많은 사이에 대상 수상작이 없던 것이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하지만 덕분에 다음에 기회가 생긴다면 완성도 있는 작품을 더 연구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 #사라(Sarah) •

수상자 채수연(미소 22), 김정민(미소 21), 이혜진(미소 21), 정주원(경영 20)



대표자 채수연

미디어소프트웨어학과 22학번

1. 공모전을 참가하게 된 계기

전공 수업인 영상처리 과목을 듣다가 교수님의 추천으로 알게 됐습니다. 영상 디자인을 다루는 수업이라 캐릭터 디자인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며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아 참가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2. 팀으로 공모전에 참여한 이유

각 구성원이 서로 잘하는 분야들이 있었고 같이 팀을 이뤄 참여했을 때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생각해 팀으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번 공모전에서 팀원들과 함께하며 책임감도 높아지고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동기부여도 됐습니다.

3. 각 팀원끼리 어떻게 마스코트를 만들게 됐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축일인 부활절을 활용했습니다. 원래는 부활절을 상징하는 계란을 이용해 마스코트를 만들려고 했지만, 부활절을 뜻하는 동물인 토끼가 캐릭터로 표현하기 더 좋을 것 같아서 토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바로 그 바뀐 캐릭터가 '사라'라는 토끼입니다. 부활절은 3월 말~ 4월 중순 봄에 해당하는 절기이기 때문에, 부활절의 토끼는 봄이자 한 해의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겨있어서 토끼로 최종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4. 마스코트를 만들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이 토끼를 보고 학우들이나 교수님들, 일반인들까지 본교를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본교를 상징하는 로고를 많이 참고했습니다. 본교 로고의 방패, 그걸 감싸는 노란 띠, 푸른색을 최대한 활용해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노란 띠를 활용해 목에 두를지, 본교의 방패를 메고 있을지 아니면 들고 있을지 등 세세한 것 하나하나 신경을 써서 만든 기억이 있습니다. 토끼의 표정, 인상까지 어

떻게 하면 더 귀엽고 활발해 보일지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5. 다른 후보작을 보고 어땠는지

본교에 가장 어울릴 만한 마스코트로 저희는 토끼를 생각하여 온전히 '토끼'라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후보작을 보니 양이나, 비둘기, 다람쥐 같은 예쁜 동물도 많았고, 디자인 면에서도 각양각색 특별한 디자인들이 많이 나와서 신기했습니다.

6. 마지막으로 최우수상 수상 소감

프로젝트를 통해 팀원들과 협력하며 끝까지 좋은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저희의 노력과 과정들이 만들어 낸 '사라'가 최우수상에 올랐다는 결과에 정말 놀라고 기뻐했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성취감과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앞으로 더욱 도전하여 많은 경험을 통해 성장하고 싶다고 느꼈습니다.

글 - 박제현 부편집장 zzcjtjdz@sungkyul.ac.kr

사진/참조 - 공모전 수상자

기자칼럼



김정민 수습기자

지난 수십 년 동안 AI 기술은 꾸준히 진화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다. AI(Artificial Intelligence)는 인간의 학습 능력, 추론 능력, 지각 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하려는 컴퓨터과학의 세부 분야 중 하나다. 현재, 우리는 AI를 일상생활에서 경험하고 있다. 음성 비서, 추천 시스템, 자율주행 자동차, 소셜 미디어 피드의 콘텐츠 추천, 그리고 온라인 쇼핑 추천 엔진과 같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다. AI 기술의 미래는 더욱 흥미로운 것으로 예측한다.

AI 기술은 의료, 교육, 기업, 환경 그리고 다양한 분야에서 혁신을 가져왔다. 의료 분야에서는 질병 진단과 치

료에 AI를 적용해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고 의료 서비스를 개선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는 맞춤형 학습 경험을 제공해 학생들의 성과를 향상시킨다. 또한 기업에서 자동화와 생산성 향상을 가능하게 하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더 나아가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에도 기여한다. 에너지 효율화, 자원 관리, 환경 모니터링 등에서 AI를 활용해 지구 환경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혁신과 편의성이라는 이점과는 반대로, AI 기술에는 아직 결점이 존재한다. 딥러닝을 통해 얼굴을 합성하여 생성하는 딥페이크나 갑자기 멈춰버려서 발생하는 자율주행차 사고 등 AI가 일으키는 일부 오류는 심각한 수준이다. 또한 AI가 만들어 낸 수많은 허위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가짜 뉴스와 게시물들이 인터넷에 확산되며 문제가 커지고 있다. 이러한 스캠 사이트들은 검색 엔진에서

걸러지지 않고 검색 결과로 노출되며, 이는 인터넷 정보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불확실성과 개인정보 침해의 위험 속에서 애플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워즈니악은 통제가 불가능할 정도로 AI가 강력해지기 전에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의 발전은 삶의 질을 향상시키지만, 기술의 고도화와 자동화 사용의 증가로 통제 불능의 상태가 되거나 특정 목적을 가진 집단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심각한 사회 윤리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AI 기술의 발전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윤리적 기준과 규제를 개선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완화할 방법을 찾아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AI 기술을 적절히 활용하고 관리함으로써 우리는 미래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글 - 김정민 수습기자 kjm020102@sungkyul.ac.kr

체험에세이



박제현 부편집장

어느 날 저녁, 거실에서 엄마와 함께 TV를 시청하던 중 한 퀴즈 프로그램을 봤다. 다양한 직업의 일반인들이 우리말 한글에 대한 퀴즈를 풀어 대결하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엄마는 내게 학교 신문을 만드는 사람이니 저 정도는 다 알아야 하지 않느냐 물었다. 진짜 기자도 아닌 내게 그런 말을 하니 필자도 농담 삼아 “엄마는 공부도 못했으면서 나한테 뭐라 그러면 안 돼.”라고 말하자 엄마는 학창 시절 공부를 잘했다고 되받아쳤다. 생각해 보니 엄마가 학창 시절 어떤 성적을 받고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 잘 몰랐다. 너무 궁금해진 나머지 TV 시청을 멈추고 엄마의 과거 이야기를 캐묻기 시작했다.

엄마는 학창 시절 ‘수우미양가’ 중 늘 ‘수’를 맞았고 주변에서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으로 인식했다고 한다. 가끔 ‘미’의 성적을 받으면 속상해 울며 하루를 보내는 그런 여린 소녀였다. 그 어렸던 소녀의 꿈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꿈을 잃은 그들에게

선생님이었다. 그만큼 공부가 재밌었고 그 배움을 다른 학생들에게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어른이 되고 싶어 했다. 그러나 현실의 제약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해야만 했다. 둘째지만 맏이 역할을 했던 엄마는 공부라는 꿈보다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적인 상황들이 자꾸만 펼쳐졌다. 미래보다 가족들을 위한 현재의 삶을 살기에 급했고 결국 꿈을 포기하고 생활에 뛰어들게 됐다.

이야기를 듣고 꿈을 잃어 힘들고 슬프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엄마는 그 시절에는 다 그랬다고 말했다. 분위기가 가라앉지 않게 “엄마는 시대를 잘못 태어났네, 지금 시대에 태어났으면 많은 지원도 받으면서 계속 공부도 하고 결국 큰 사람이 됐겠어.”라고 말하자 엄마는 미소를 보이며 그렇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 꿈을 이루지는 못해 지금에서야 아쉽지만 돌아보면 그 순간들 끝에 엄마의 가족 그리고 지금의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한다. 엄마에게 그림, 지금도 꿈이 있냐고 물었다. 엄마는 내가 꿈을 이루는 것, 우리 가족이 늘 함께 아프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라고 했다. 그 꿈을 이룰 것 같냐고 다시 묻자, 엄마는 이미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야기를 마치고 방에 들어와 혼자 생각에 잠겼다. 나는 꿈을 이룰 수 있을까, 엄마의 학창 시절보다 더 나은 환경 속에서 꿈을 이루지 못한다면 실망감만 안기고 엄마의 행복도 이루지 못하는 건 아닐까. 그래도 다행이다. 현실적인 상황 속에 꿈을 잃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 또 다른 꿈을 꾸는 지금도 행복하다는 엄마가 있으니까, 꿈을 잃는다 해도 행복할 수 있으니까.

이처럼 우리는 모두 꿈을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인 상황에 그 꿈을 포기할 때도 있다. 사람들은 그것이 실패이자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다. 필자 또한 꿈을 이루지 못할 두려움이 앞을 가로막지만 결국 꿈이라는 것은 하나의 목표다.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다면 또 다른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면 된다. 꿈을 이룬 사람만이 행복한 것이 아니다. 꿈을 잃어 불행한 것도 아니다. 이 글을 통해 꿈을 잃은 사람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으로 삼고 자신의 또 다른 행복을 찾아 나아가면 좋겠다.

글 - 박제현 부편집장 zczjftjdz@sungkyul.ac.kr

편집장 노트

2023년을 되돌아보며

어느덧 2023년이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필자에게 2023년은 다른 해보다 조금 더 특별한 한 해였다. 고민 끝에 1학기를 휴학한 후 봉사와 대외활동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1년을 보냈다. 그래서인지 이번 2023년이 필자에게 더 뜻깊게 다가왔다.

필자는 연초가 되면 항상 새로 산 다이어리에 올 한 해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적고는 한다. 올해도 어김없이 연초에 새 다이어리를 구매해 이루고 싶은 것들과 하고 싶은 것들을 끄적였다. 연말이 점점 다가오고, 문득 올해 얼마나 많은 목표를 이뤘는지 궁금해 오랜만에 다이어리를 펼쳐봤다.

첫 번째로 적은 목표는 ‘한 달에 한 번씩 여행 가기’였다. 여행을 너무 좋아하는 필자는 휴학 후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이 매달 여행 가기였다. 성인이 되면 언제든지 가고 싶을 때 여행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학업에 치이고, 아르바이트

에 치이느라 여행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래서 올해는 적어도 휴학하는 한 학기만이라도 원 없이 여행을 다니고 싶었다. 돌아켜보니 이 목표는 어느 정도 이룬 것 같다. 여행을 매달 가지는 못했지만, 틈날 때마다 이곳저곳 여행을 다니며 많은 추억을 쌓았다.

두 번째 목표는 ‘독서하기’였다. 실제로 이 목표를 이루고 싶어 책도 구매했다. 하지만 매번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독서를 하지 못했고 결국 목표를 이루지 못했다. 연초에 산 책은 책장에서 한 번도 꺼내지지 못한 채 먼지만 쌓여갔다.

세 번째 목표는 ‘운전면허 따기’였다. 20살이 되자마자 면허를 따려 했지만, 이 또한 시간이 없다는 핑계로 매번 미루기 일쑤였다. 하지만 올해는 더 이상 미루고 싶지 않아 시간을 쪼개 학원을 다니며 결국 운전면허를 취득했다.

마지막 목표는 ‘스펙 쌓기’였다. 휴학 후 뭘 하면 좋을까 고민하다 막연하게 적은 목표였다. 이 목표 또한 완

벽하게 이루지는 못했지만, 대외활동과 봉사를 하며 나름대로 필자만의 스펙을 쌓았다. 사실 자격증을 따지 못한 게 아쉬움으로 남지만 다른 방향으로 다양한 스펙을 쌓아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었다.

다이어리에 빼빼빼빼 적혀있는 올해의 목표를 읽어보니 한 해 동안 있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바쁘게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뒤를 돌아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하지만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다시 읽어보니 올 한 해를 되돌아볼 수 있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학우들도 분명 각자 세웠던 자신만의 2023년 목표가 있을 것이다. 한 해가 얼마 안 남은 만큼 바쁘게 달려가던 걸음은 잠깐 멈추고, 연초에 세웠던 목표를 다시금 되새기며 한 해를 되돌아보는 것은 어떨까?

글 - 김채린 편집장 coffs787@sungkyul.ac.kr

주간사설

To Be, Or Not to Be



김희선 교수

영어영문학과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가혹한 운명의 화살과 돌맹이를 견디는 것/ 또는 고난의 바다에 무기를 들고 맞서는 것/ 어떤 것이 고귀한가? 죽는 것은 잠드는 것/ 오직 그뿐. 잠들어 마음의 괴로움과 육체의 고통이 모두 끝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진정 바라는 것이 아니겠는가.”

“To be, or not to be”는 “사느냐, 죽느냐” 이외에도 “존재냐, 비존재냐,” “이대로냐, 아니냐,” “있음이나, 없음이나,” 등 다양하게 해석된다. 무엇으로 번역하던 이는 존재론적 함의의 질문이다. 단순히 살고 죽는 문제가 아니라, 고통스러운 운명에 순응하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영원한 잠인 죽음을 선택할까,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고뇌하는 주인공 햄릿의 인간적 고뇌가 함축되어 있다. 16세의 왕자 햄릿에게는 삼촌이 부왕을 살해한 후 왕이 되고 모친을 왕비로 삼았다는 상황이 참으로 가혹했다.

거기에 더해 혼령이 되어 나타난 부왕으로부터 받은 복수의 명령은 성년이 채 되지 않은 십 대의 왕자에게 너무나도 무겁고도 벅찬 사명이었다. “사느냐, 죽느냐”로 시작되는 그의 긴 독백은 차라리 죽는 것이 고통스러운 운명 속에 사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하고 고뇌하면서 뱉어내는 고통의 토로이다. 그러나 햄릿은 이어서 “잠들면 아마 꿈을 꾸겠지. 그것이 곤란하구나/ 우리가 생을 끝냈을 때 죽음의 잠에서 어떤 꿈이 나올지 모르기에/ 그것이 우리를 이토록 주저하게 하고 이 긴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거겠지.”라고 말하며 갈등한다.

필자는 초등학교 5학년 즈음부터 죽음과 잠을 무서워했다(물론 낮잠과 같은 달콤한 단잠은 제외하고). 죽음은 그렇다 쳐도, 왜 잠을 무서워하느냐고 물으니 모르겠다.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생명으로 이 세상에 태어날 확률은 무(無)에 가까울 정도로 희박함에도, 이 거대한 우주 속에 한 점과 같은 존재가 되어 ‘살아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신비스럽고 기적적이지 않은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데, 그런 생각에 빠지는 순간 내 몸과 혼이 붕 뜬듯한 몽롱함과 신비감에 휩싸이곤 했다. 신앙을 갖게 된 이후 그러한 신비함은 생명에

대한 창조주의 심오한 섭리의 작용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지만, 지금도 아주 가끔 그런 삶의 신비감을 체험하기도 하고, 언젠간 생명의 끝나고 죽음이 온다고 생각하면 순간 휘청거릴 정도의 무서움을 느끼기도 한다.

어린 시절, 하루를 마무리하는 한밤의 ‘잠’이 두려웠던 이유는 잠을 잔다는 것을 일종의 죽음의 체험이라 여겼던 탓이다. 자주 꿈에서 악몽을 꾸는 날이 많았는데, 특히 무서운 영화를 보거나 무서운 사건에 관한 뉴스를 들은 날이면, 여지없이 밤에 무서운 꿈을 꾸었다. 악몽을 꾸다 가위에 놀리거나 하면 그 공포가 어찌나 컸던지, 깨어나려고 안간힘을 쓰다 가까스로 깨어나면 다시 잠들기가 무서웠다. 그러니 누가 죽음을 잠에 비유하며 쉽사리 안식이라 했던가. 만약 죽음 후 지옥에라도 가게 되어 계속 악몽을 겪어야 한다면... 대학생이 된 후, 영문학 수업시간에 햄릿의 독백을 읽은 후 큰 충격과 함께 감동을 받았는데, 바로 오랜 세월 필자의 고뇌가 바로 햄릿의 독백에 그대로 녹아있었기 때문이다(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위대하다!).

얼마 전 나진환 교수의 연극 〈햄릿, 걷는 인간〉을 보았다. 삶의 근원적 존재에 대한 불안, 죽음에의 문제, 지독한 부조리

로 인한 갈등에 직면한 햄릿 왕자의 고뇌가 나진환 교수의 각색의 질을 덧입고 인문학적 성찰의 결과물로 무대 위에 올려졌다. 햄릿의 모습이 젊은 10대가 아닌 40대 중년의 모습으로 변화된 것은, 햄릿의 불안과 고뇌가 단순히 나이와 미성숙의 문제가 아닌, 모든 인간 삶 속에서 직면하는 공통의 문제임을 드러내고자 한 것으로 보았다. 재해석된 햄릿은 끊임없이 “걷는 인간”이다. 고민하고 불안에 시달리는 우유부단하고 미성숙한 자가 아니라, 실존적이고 근원적 질문을 마주한 인간, 즉 고뇌하며 끊임없이 걷는 인간이다. 햄릿은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 자신의 실존적 자화상이기도 하다.

이순(耳順)을 넘긴 지금의 필자는 최근 ‘뷰티풀 에이징’(Beautiful Aging)이라는 이동원 목사님의 세미나에 참석 한 바 있다. 젊음과 생명 못지않게, 노년과 죽음도 축복이라는 말씀이 가슴에 크게 와닿았다. “사느냐, 죽느냐”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질문으로, 즉 이대로 현실에 순응하며 살 것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노력하며 살 것인가라는 삶의 방식에 대한 질문으로 변화해야 한다. 우리는 각자 삶과 노년과 죽음의 축복 안에서 계속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교수칼럼

지금, 왜 〈햄릿, 걷는 인간〉인가?



나진환 교수

연기예술학과

세상이 소란하다. 아니 전 세계가 소란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더 소란하다. 이 시대의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소란의 진원지에 터져 나오는 파열음들로 생겨나는 두통과 답답함으로 인해 미칠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다. 왜 이런 일들이 대명천지에 발생하는 걸까?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단언컨대 그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문학적 사고의 다양성의 결핍에서 온 사고의 경직성 때문일 것이다.

〈햄릿, 걷는 인간〉은 셰익스피어의 〈햄릿〉을 필자의 가장 핵심 사상인 실존주의 시각에서 다시 쓴 것이다.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질문, 〈햄릿〉의 첫 대사이기도 한, “거기 누구냐?”(Who's there)에 대한 실존주의적 대답이 바로 “걷는 인간”인 것이다. 세계는 언제나 변화하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간도 끝없이 재정의해야 한다. 머물면 썩고,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를 억압하

는 폭력이 되기 때문이다.

“Who's there?” 이 질문은, 역사적으로 보면 인간이 신과 분리된 개인(Individual)이라는 측면에서의 사유이다. 서구 사회에 있어서, 중세의 기독교라는 종교 안에서 파악된 존재로서의 인간이 아닌, 분리된 개인으로서, 하이데거식으로 말하자면, “현실성”(Faktizität, 現實性) 안에 존재하는 “현존재”(現存在, Dasein)의 문제인 것이다. 끊임없이 변해가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즉 가변적인 인간적 조건 속에서 규정되는 인간이 그 조건 속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질문하고 규정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존재론적 존재의 우위성”을 가진 ‘존재’에 관한 것이다. 괴테식으로 말한다면 끊임없는 생성 속에서 사유하는 인간, ‘파우스트적 존재’이며, 자코메티식으로 말하면 ‘걷는 인간’인 것이다. 모든 의미의 걸치레를 벗겨버리고 험벗은 존재 그 자체로 걷는, 변해가는 시공간 속에서 끊임없이 사유해야 하는 인간으로 ‘전략한’ 존재인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에게, 근본적인 ‘불안’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동시에, 신이 선물한 인간 최고 가치인 자유의지를 발휘하는 인간에게 걷을 수 있게 하는 동력으로도 작용한다. 키르케고르가 말했듯, 자유의지가 발동되지 않으면 불안도 없기 때

문이며, ‘자유 의지’와 ‘선악과’가 없었다면 인간에게 불안도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불안이란 필연적으로 선악과란 ‘금지’ 앞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 때, 비로소 발생하는 감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안의 긍정적인 측면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근본 조건인 자유의지 즉, “어디로 가야 할까?”란 질문을 발동시키고, 걷게 하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불안이 없다면, 인간의 자유의지도 없고, 걸을 수도 없다. 그냥 안주하는 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안주는 없고 오로지 ‘자기 기만’만 있지만 말이다. 베케트의 ‘고도’를 기다리는 두 인간처럼, 어디로든 갈 수 있는 공간에 있지만, 어디로도 갈 수 없는 부조리한 인간이 돼버리는 것이다. 신을 잃어버린 인간의 궁극적 현존형상! 따라서 신을 잃은 인간에게 “어디를 향해 걸을 것인가?”의 문제는 “왜 자살하지 않는가?”의 문제와 직결된 심각한 문제이다. 신의 진리 안에서 자신의 존재를 규정하는 “유신론적 실존주의”자인 필자에게 그 길은 예수를 따라가는 좁은 길이며, 그 길을 가기 위해선 ‘진리의 거울’ 속에 자신의 일그러진 욕망의 파편들을 부인하는 것이지만 말이다.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인문학으로서의 연극예술’이라는 거울에 당신의 영혼



을 비추어 보는 것이다. 신이 준 인간의 위대함이란, 불안을 거부하지 않고 그 불안과 동행하면서 끝까지 걷는 존재, 즉 불안에 종속되지 않고, 속이지도 않고 끝까지 걸어보는 것에 있기 때문이다. 카뮈식으로 말한다면 바람이 거세게 부는 절벽의 끝, 벼랑에서 버티는 반항...? 정도쯤으로 표현될까? 필자는, 이 작품의 연출가로 소망한다. 당신은 “왜, 지금 거기 있는지”에 대하여 한 번쯤 생각하게 하는 시간을 되기를.

학습전략검사(MLST) 결과해석이 필요해?

2023-2학기

학습전략검사(MLST) 해석상담 프로그램

※ 해석상담 프로그램의 학습역량은 **자기주도 학습역량**
핵심역량은 **소통협력역량**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학교에 직접
방문하는 것이 조심스럽다면,

비대면 상담
(온라인 및 전화 등)



상담가 선생님과 일대일로 소통하며
더 심층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면,

대면 상담



전문가에게 1:1로
해석상담 받아보자!

신청 방법 자세히 보기

STEP.01

신청서 작성



마이페이지로 이동

비교과 교육과정		
전체	진행중	참여
2452	5	23

[CTL]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및 상담신청서.hwp

통합역량개발시스템>마이페이지
비교과 교육과정에서 학습상담 클릭!
맨 아래 첨부된 **상담 신청서 양식** 다운받아 작성

STEP.02

상담 스케줄 픽스

상담예약	실전취창업
상담기초정보 >	
종합심리검사 >	
교수님 상담 >	
전문가 상담 >	
상담이력 >	

상담 메뉴의 상담예약>전문가 상담
학습상담에서 원하는 날짜로 상담 신청
이때, **작성한 신청서를 반드시 첨부**,
"MLST 해석상담 신청합니다"라고 기재할 것!

STEP.03

학습전략검사(MLST)
진행

상담을 진행하기 전, 내담자의 학습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학습전략검사 진행(온라인 및 핸드폰으로 가능)



STEP.04

해석상담 진행!

비대면 상담은 전화 또는 온라인으로,
대면 상담은 기념관 409호에서 진행

※상담예약은 최소 3일 전에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상담 운영 기간 : 2023. 09.04. ~ 2023. 12.18.

모집 대상

자신의 학업전략검사(MLST) 해석이 궁금한 본교 재학생
누구나 신청 가능

23-1학기 해석상담 참여 학생 후기

학습문제를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음.
나만의 공부 방법을 갖고 하는데 다듬고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가 된 프로그램

참여혜택

S-Point 0.1점

진행 안내

최소 1회기 진행(소요시간 1시간)

※케이스에 따라 회기 및 회기별 진행 시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오시는 길

성결대학교 기념관 409호(교수학습지원센터 학습지원팀)



기념관은
운동장에 위치한
십자가 달린 건물이며!

